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소녀시대·강타·보아 등 SM소속 가수 월드투어

강타, 보아,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에프엑스, 트랙스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월드투어에 나선다.

이들은 다음 달 21일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을 시작으로 9월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 9월 11일 중국 상하이 홍커우체육관, 날짜를 조율 중인 일본 도쿄를 거쳐 아시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합동 공연 'SM타운 라이브 '10 월드투어' 무대에 오른다.

서울 공연의 티켓 예매는 15일 G마켓을 통해 가능하다.

"아름다워지고 싶나요 함께 고민해 볼까요"

뷰티 프로그램 '겟잇 뷰티' MC

유 진

탤런트 유진이 케이블 올리브채널의 뷰티 프로그램 '겟잇 뷰티(Get it' Beauty)' MC를 맡아 뷰티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유진은 "단독 MC는 처음이라 기분이 좋지만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뷰티 관련 책을 출간하고 화장품 모델을 하면서 뷰티 분야에서 여러 모습을 보여 드려 이런 프로그램을 맡게 된 것 같아요. 단독 MC가 처음이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얻은 저만의 뷰티 노하우를 전달하고 싶어요."

'겟잇 뷰티'는 매회 다이어트와 메이크업, 피부관리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미용 관련 아이템을 주제로 20~30대 여성 50명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미용법을 소개한다.

유진은 MC이자 멘토로 여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직접 메이크업 시연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성그룹 'SES'로 활동할 때부터 미모를 인정받던 그였지만 여러 가지 외모 콤플렉스로 고민해 왔다고 했다.

콤플렉스 때문에 수술 상담 받기도

첫 단독 MC 기분 좋지만 책임감 커

"다크서클이 콤플렉스 중 하나에요. 잠을 못자면 심해지는 편이라 예전에는 수술 상담까지 받아 봤지만 의사 선생님이 메이크업으로 가리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받더라도 다크서클 커버는 제가 직접 하는 편이에요."

최근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 중인 KBS 2TV 수목극 '제빵왕 김탁구'에서 김탁구의 첫 사랑 유경 역을 연기하고 있는 그는 "출연했던 드라마 중 시청률이 30%를 넘는 작품은 처음이라 매우 기분이 좋다"고 했다.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라 재미있어요. 촬영은 거의 생방송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촬영기간이 겹쳐서 처음에는 '겟잇 뷰티' MC를 맡는 것에 대해 고민을 좀 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을 듣고 정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진은 "첫 회 녹화를 마쳤는데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시청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름다움에 대해 솔직한 조언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거에요. 최대한 진솔하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유진이 진행하는 '겟잇 뷰티'는 14일 수요일 밤 11시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서신애 '구미호-여우누이뎐' 아역스타 김유정

"어른들은 왜 대결로만 보죠? 우린 재미있게 연기하는데…"

MBC TV '지붕뚫고 하이킥'으로 사랑받은 서신애(12)와 MBC TV '동이'에서 동이(한효주 분)의 아역을 연기한 김유정(11), 두 아역스타가 KBS 2TV 납량특집극 '구미호-여우누이뎐'에서 호흡을 맞춘다.

두 아역은 5일 첫선을 보인 이 작품에서 각각 살기 위해 또래의 간을 먹어야 하는 초옥이와 아기 구미호를 연기한다.

최근 만난 두 아역스타는 "우리는 서로 연기대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면서 더 열심히 잘하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봐서 부담스럽다"며 해맑게 웃었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는 해리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착하고 순박한 신애를 연기했던 서신애는 이번에 양반집 딸 초옥이를 맡아 표독스럽게 변한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아버지가 첩을 들이면서 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도령이 그 첩의 딸 연이를 좋아하자 첩의 모녀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초옥이는 또 살기 위해 연이의 간을 먹게 된다.

서신애는 "악역을 처음 맡아서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며 "극 중 연이의 뺨을 때리는 신도 있는데, 두 번 때려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동안은 내가 맞는 연기를 주로 해서 통쾌하기도 했다"고 웃었다.

"'지붕뚫고 하이킥' 때 해리가 날 괴롭히는 연기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했을까 상상하기도 하고, '이럴 땐 해리도 참 힘들고 미안했겠구나'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예고편을 보면 제가 연이를 우물에 빠뜨리는 신이 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깊은 우물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텐데 너무 미안했어요."

영화 '해운대'와 '추격자'를 거쳐 '동이'로 사랑받은 김유정은 초옥이 아버지의 첩으로 들어가는 구미호 구산댁(한은정 분)의 딸 연이를 연기한다.

"처음에 아기 구미호로 분장한 내 얼굴을 보니 아바타가 된 것 같아 좀 무섭기도 했고 불편하기도 했어요.(웃음) 그 후에는 코부분만 분장했는데 귀엽다고 말씀해주셔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동이'의 시청률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퇴장한 그는 공교롭게 이 작품으로 '동이'와 같은 시간에 경쟁하게 됐다.

"'동이' 감독님한테 죄송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품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웃음) 아기 구미호라는 설정을 듣자마자 신기하고 새로운 느낌이 들었고, 오디션에 합격한 후에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이 작품에서 장시간 구미호 분장을 견디는 것과 함께 와이어 연기, 우물에 빠지는 연기도 소화해야 했다.

"우물에 빠지는 연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물을 무서워하는데 이번 촬영으로 물과 가까워진 것 같아요. 코에 물이 들어가서 숨이 막혀서 울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으니 마저 다 찍었어요."

그는 "스태프 언니, 오빠들이 다 잘해줘서 촬영장 가는 게 재미있고, 한은정 언니처럼 착하고 예쁜 언니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연기 호흡도 맞춰보는 게 재미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